남은곡 권지단이라

남은곡 권지단이라

[해제]

<남은곡>은 작자와 창작연대를 알 수 없는 가사로 단권(單券)으로 된 전적에 필사되어 있다. 필사된 글씨가 매우 어지러워 원문 해독이 불가능한 구절이 많아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작품이다. 또한 <남은곡>의 뒷부분에는 <망월가>라는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하나의 작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효의 중요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부모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으며 부모가 세상을 뜬 이후에는 효를 실천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으니 항상 효를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후반부는 부녀자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부녀자의 덕목 중 으뜸인 '봉제사(奉祭祀)'를 실천하는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논하며 치산(治産)의 덕목에 대해서도 강조한 뒤 후손들에게 이를 잊지 말라고 훈계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계녀가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民十百句∝

南隱曲

∝∝∝∝∝∝∝∝∝∝

남은곡 권지단이라
임조체 세사람드라 이말삼 드러보소
천지간이 즁ᄒᆞ▨신제 부모밧기 아이시면
이ᄂᆡ몸을 길너실제 쳔금갓치 즁히시고
구산갓치 사랑ᄒᆞ여 구륨속의 뭇바다ᄂᆡ여
스이ᄒᆞ에 찬ᄃᆡ난 부모눕고 ᄃᆞ신ᄃᆡ난
ᄌᆞ식누재 품의락업의락 달ᄂᆡ시며 얼위시ᄇᆡ
동지셧쌀 진진밤과 노리유월 더운날의
쳔신만고 ᄒᆞ에∝ ▨▨▨ 이릿ᄂᆡ여
십오세 너메가고 이십이 졍ᄒᆞ면
업난지물 슈합ᄒᆞ에 혼체랄 쳥ᄒᆞᆫ후의
가셔랄 ᄎᆞ려쥬이세 ▨▨ᄒᆞᆫ신 신여이나
자식한나히 나의은덕을 알을소에
며리비허 신을셤고 해랄비혀 창바든날
막ᄃᆡᄒᆞ 큰은덕을 만일니나 갑소에
골윤산 제일봉니 아므리 놉다한들
여이에 부모님 큰은덕을 비기리오
만경충마슈가 아므리 깁흔들 여이ᄒᆞ야
부모님 큰은덕니 비기리오 ▨신을
밍ᄒᆞ시난 부모랄 위ᄒᆞ시요 금의옥식
의로ᄇᆡᆨ연 용엥하고 ᄉᆞ후에 황금ᄇᆡ은

남은곡 권지단이라

관의▨신랄 영장한들 가의업산 큰은을
츄효난 갑상을 쳔ᄒᆞ효ᄌᆞ 슌엄군과
만고ᄃᆡ명 공자임도 큰은덕을 오히려
다갑고에 층찬ᄒᆞ에 산일ᄉᆞᄃᆡ 혼쳔망극니라
일너시니 ᄒᆞ말며 우리간튼 병님이야
두로ᄃᆞ층 영하리요 빅이부모 횡은잘이
지경니드 죄막ᄃᆡ니 불호난 증부ᄌᆞ의
훈계로다 부려ᄌᆞ혀 유친은 축야셩의
션니로다 옛새람의 어진힝실 골슈의
박혀두고 두부사람 실져효향을 ᄒᆞ여
시풍광니 무졍ᄒᆞ야 세월니 흘너가이
북광이 두어벼혀 슌식간이 다늘거다
만민이 쳔▨▨발이 되어잇고 김산미소▨▨▨의
츈광이 흣터지고 ᄌᆡ색고의 바진ᄃᆡᄃᆡ
은은이니 두문작식 소경의 눈물니 졀노난다
니별갓숨 나고가니 니별셍사 공은가로
즈의이별니라 곳갓탄 미싁이에 쳐처의
로가마난 부모님 ᄒᆞᆫ쳔가면 육회ᄀᆞ 졍망ᄒᆞ다
의노선ᄃᆡ 만할쏫산 멍영의 다시ᄃᆡ고
셔쳔디난 히난동연의 든든오고 일취ᄃᆡ후의
니석날ᄲᅵ에 난고샘신산 불사약을 두여가지
어더다가 부모님 지호향ᄒᆞ에 쳘년니나
밧들고져 그살이 장쳔의 지난히을
ᄆᆡ여줄고 두쑴모을 술▨ᄒᆞ의 난세남실
져이난 져도ᄃᆞ 낮ᄒᆞ이 못될일
싱각말고 효행이난 ᄒᆞᄀᆡᄒᆞ도 효행할쥴
모라시며 부모님 ᄒᆞ신영을 조곰도
지월마라 그산고두 니나ᄒᆞ니 만각홀적
되난말가 사족을 잘노의여 부져러니
ᄒᆞ여시됴 청원의시나 셜쳔고의 비감ᄒᆞ고
가친명을 위ᄒᆞ여서라 할가마난 말가양불
ᄀᆡ힝진은 고금의 비감ᄒᆞ다 효동쳔지
ᄒᆞ자후혹 니겨님▨이어 아니명이며
젼안니 훌ᄌᆞ니ᄃᆞ 효행도 ᄒᆞ겨니와
쳘니원힝 부ᄃᆡ마소 만일불힝 ᄒᆞ면분상
더욱셤다 호쳔고 통곡ᄒᆞ며 통곡고
효쳔ᄒᆞ면 진슈셩시조 아모리 져사한들
쥭은부모 사라오며 그음식 그립든가

남은곡 권지단이라

초행ᄒᆞ여 겨든싱젼의 ᄒᆞ려셔라 고은읏
만단거든 부모 져싱각ᄒᆞ고 조은음식
만난거든 부모몬져 싱각ᄒᆞ은 덕은
못갑흔들 졍셩조차 아이할가 왕상은
고명하고 밍셩은 은은둥할젹 어락의
잉어쒸고 ᄂᆞ숙의 외척손나니 디두할사의 사람은
쳔고의 드낙도ᄂᆞᆫ 관거의 ᄆᆡ자할제
황금일부이 잇단말과 호항향을 ᄒᆞ시라고
하날쥬신 ᄇᆡ릭 술푸다 날갓탄니
어나히에 효항할고나니 부모님갓칫 못실자식
무산느리 보시랴고 어엿비 구려키워신고
금제살ᄒᆞ 매영화 잘뵈왓던가 ᄋᆡ식이
풍죽ᄒᆞ여 져영님으 행할가족 그에싱각ᄒᆞ니
가마ᄃᆡ분 그럽도ᄃᆞ 져난흔김은 쳥반초속어
감긴말 우리난 부모효ᄒᆞᆫ의 사라셔
쑬ᄃᆡ업고 셔상쳔지 조흔거싱 긍남하기
여럽도ᄃᆞ 이난조세 싱상사람드라 니라안보고
호행ᄒᆞ여 셔랑겨여ᄉᆞ 쳔ᄀᆡ지벽ᄒᆞ에 상ᄒᆞ랄
분간ᄒᆞ고 일앙원내 ᄒᆞ에쥬에 잘난ᄒᆞ시
인싱니 지간ᄒᆞ에 만물니 기렁니한
국야불식 건강덕은 남사의 응ᄇᆡ할일
졍무동 곤슌덕은 여자의 조님ᄒᆞᆫᄇᆡ라
음힝오힝 바든기운 쳔슬이 달나시니
졔드지 일치말고 쳔쳔궁궁 ᄒᆞ여셔라
쳔우간의 남자식은 곳훈ᄒᆞ기 여려우라
인ᄋᆡ에지 분셩졍을 ᄒᆞᆫ가운ᄃᆡ 닐너잇고
효제츙신 조흔도리 말삼으로 기셜ᄒᆞ니
ᄒᆞ우부일 아일진ᄃᆡ 사람되기 외르다
네몸니 여자르셔 곳훈ᄒᆞ기랄 선히던고
십오셰 급겨ᄒᆞ면 과연당좌ᄒᆞ고 십오세우
장셩ᄒᆞ면 괴혼으로 일너시니 십젼말ᄇᆡ
홀 제물 지각으로 바려주고 시졈의셔
▨▨ 고할날리 올▨연 쑨서로다
쑬ᄃᆡ업난 여린앵은 동쇄랏 부리지말고
긔졈ᄒᆞ난 어륜말셈 귀에담아 드러셔라
친션직업을 어조녀 공부랄 엄▨의다
히오션 음식의 본네직업을 여나더ᄉᆡ
능통ᄒᆞ랴 연지상툥 인문이그 월각각이

남은곡 권지단이라

잇려주고 세친경졍 조흔네 법젼쥬러
ᄇᆡ화셔라 누의무비 음지식은 공부자의
훈계잇고 니슌위 졍쳥쳡부 오난ᄆᆡᆼ션
언외 일니시니 슉하에 ᄀᆡ라식각을
란우말고 공도ᄒᆞ런이와 ᄒᆡᆼ실닷가 시라며
짐니 닛실제난 ᄋᆡ츙키나 ᄒᆞ려니
남의집의 쥬ᄒᆞᆫ만 사랑ᄒᆞ기 치ᄉᆞᆯ소에
부모리 불슌하며 ᄌᆡ▨기 더욱밉고
가장의게 불공ᄒᆞ면 일ᄉᆡᆨ이 가즁이라
바날찌 못찌여 돗긴ᄒᆞ면 상랑ᄒᆞ고
무럭츄ᄉᆡᆨ 더라위난 슌면리 사라ᄀᆡ
ᄭᅮ짓던 녜부님은 일고엄ᄌᆡ 벼랍엄고
젼ᄇᆡᄭᅵᄂᆡ 집언ᄒᆡ 불ᄆᆡᆫᄒᆞ랄 ᄯᅳᆺᄎᆞ던고
이러무로 미조구졍의 젼젼주주 경셔하고
스ᄒᆞᆨ일월 즁인부인 훈게함 삼종ᄃᆡ의
칠겨지 아니을모라면 무실니라 성봉졍조일
불취난하니 위름ᄒᆞ염 나흔 네부모에
젼인다 이ᄌᆞ소에 근근ᄎᆞᄎᆞ 경셔ᄒᆞ니
전전봉공 ᄒᆞ이셔▨ 쳔고의 어진부모
영영히 ᄒᆞ여보니 후쳔지금 셔생의
지금좃ᄎᆞ 엽셀소에 황여영 우천가의
이마위에 덕들 뷰부란
모음지려 할제의 실은의 시볍이요 조▨▨여
ᄐᆡᄌᆞ도▨ 살우지 화략ᄒᆞ니 유ᄒᆞ졍졍ᄒᆞ여
자난부덕니 젼일니라 바람담담 항후난
초욱과 담종만ᄒᆞ고 기록ᄒᆞ다 장존항후
위중을 신젼ᄒᆞ니 제왕과 사셔인이
종비도 날나시나 가튼날 셈천ᄒᆞᆫ낫
곳여신ᄐᆡ 도다▨▨ 쇼에▨▨ 가리
현부인은 제욱금슈 아람담다 술술각기
드라갈제 빈쳔울 달현아고 거룩ᄒᆞ다
소쳐난숭 ᄌᆡ상의 달나읜강집 소웅눌도
가장기난 졍게난 젼니공천 ᄒᆞᄅᆞ으삼
자금셔 부인ᄃᆞ병쳐 ᄯᅳ드러겨라 조악의
못심이요 방황니 겸한말고 감만ᄒᆞᄉᆡ
부모랄 노망ᄒᆞ다 제쳐노코 유학학몽
한가장 쥬낙으로 치여극코 ᄆᆡᆺᄆᆡᆺ호져
ᄇᆡᆨ명호렁으로 제이ᄉᆞᆫ며 부장날이린 종연ᄀᆡ짐

남은곡 권지단이라

노▨▨▨니 이집의 큰어룬 나맛기ᄂᆡ
잇사냐 샘시애 드무장 세난이
반찬이요 날마닥 무당▨▨ 쥬나의
의복이라 엄의둥지로 스나든니 부족ᄒᆞ면
쌀을▨다 세시명임 두새로 조화슐쎡을
과히ᄒᆞ에 거조인심 니드라고 일춘을
훈고ᄒᆞ이 유ᄒᆞᄒᆞ 제복씩어 여지가
이실스에 히사라소 겅감ᄉᆞ람 니젼담니
업부연 빗갑기에 ᄂᆡ나니 영식이라
돌빗쳔졔 가젱픽가 만신 뉘타신고
지셩박덕 네좌등은 용망이 더욱멈다
사람의 손잇고 여나고 낙조지찬
츌임ᄒᆞ니 방쟁ᄃᆡ 우샘소릭 짐우의
쎠나간ᄃᆞ 오락가록 일가친척 젼말ᄒᆞ고
슈족ᄒᆞ녀 이삼흘 츈흘이며 밧한져
방물어멈 남키도 작이익다 천이슈문
공는일 다실노 쳐치ᄒᆞ니 남의명홍
살피보면 미일ᄀᆡ기 어려모랴 잇부인
어진힝설 싱각ᄒᆞ야 빅화ᄒᆞ고 금제생의
나진힝실 종좀ᄒᆞ야 부ᄃᆡ말면 효분달악되면
열연달모 될소냐 칠세에 남여부등셕으로
너도먹어 아라스니 ᄆᆡ이유별 섬임키난
여ᄌᆞ힝실 웃듬이엇 부인 지천간이
문턱밧기 셔롭기말며 먼겨리야 경견이ᄃᆡ면
ᄒᆞ랴사고 ▨임ᄒᆞ어랄 너물나술 가시부나
쳣닥소릭에 잠을ᄀᆡ여 머리빗고 세슈ᄒᆞ야
당의올나 무만ᄒᆞ고 세ᄒᆞ기 이셩부ᄃᆡ
ᄒᆞ라드라 와일을 장아가ᄉᆞ랄 부견ᄒᆞ고
조셕진지 반란보와 감기랄 경셜▨▨
히진후의 흔졍할방 다슈말 살져보며
베ᄀᆡ이불 테드려 취침ᄒᆞᆫ후 불너오라
▨각핫 부녀힝실 쏘ᄃᆞ시 드러보자
니밤의날제 초불혀셔 비최오고 어슈져염
칫간갈제 혼자가지 부ᄃᆡ말▨ 디불제
임쥬말나 지싁니고 이ᄒᆞ라면 ᄃᆡ불제
지졈말ᄂᆞ 등졍의 부졍ᄒᆞ랴 실업산우
함나소 쳥연이 웃듬이요 사람보기
부ᄃᆡ마소 ᄌᆞ선이 사려▨ᄒᆞ라 기록거리니

남은곡 권지단이라

츙ᄒᆞ로 남보기의 졋ᄌᆞᄒᆞ라 말소ᄅᆡ
유슌ᄒᆞ면 부덕을 층찬ᄒᆞ고 노님이륜
으시거든 마져드려 졀을ᄒᆞ고 종ᄉᆞ지집
만나거든 방자되슈 말낫시생 어륜공경하야
유슌을 슌상ᄒᆞ고 어린동싱 사랑ᄒᆞ여
심덕을 닥가셔라 셔시경 일제ᄉᆞᄭᅵ에
졀펴랄 어기알고 세사음식 쟁만할▨
ᄆᆡ무려 말을말고 긔제사 참ᄉᆞ할제
싁북을 입지말고 ᄂᆡ의졔란 의찰힐제
우편을 일치ᄆᆞᄂᆞ ᄃᆡ볌여랄 드러셔라
츌쥬 ᄌᆡᄇᆡᄒᆞ고 분행의 쏘ᄌᆡᄇᆡᄒᆞ고
참신감신 각ᄌᆡᄇᆡ운 디방제난 션산후착
초허의 쑥츄ᄌᆡᄇᆡ난 승부가 ᄒᆞ나니라
솜현쳡작 각ᄃᆡᄇᆡ지 손니차렷드라 금시졍제할제
셔병을 치말고 함문ᄒᆞ애 음식을
ᄒᆞ야 구반경니 지ᄂᆡ겨든 츈이문을
넌후제관이 진다할제 세슐밤을 불외마라
▨▨▨▨ ▨ᄒᆞ애 이욱니 뫼셔셔
쳘지 ᄐᆡ작ᄒᆞ고 담듀강신 ᄒᆞ아이라
제쳘의 진졀드랄 사람의 물나ᄒᆞ라
젼우하우 다삿삿쥴의 쥴쥴의 차려라
제일ᄒᆞ가은ᄃᆡ 잔반을 뫼겨시라 편초체
오우런의 반시졈니 제일한가온ᄃᆡ ▨▨을
뫼세시니 하런의 의나니 병이오
우련의난 육면이라 제삼▨의 오신탕은거지
사의삼심이요 제사한가은ᄃᆡ 쳥상노와시니 하련의난
히침치요 우런오ᄉᆡ 손치그리 ▨제오힝의
오싁다나 기제에난 삼실이라 이랑이젠
은등럼이요 육랑육젼
은련니 총절셜그 ᄒᆞ여니완
주다난 에런이다 체니여차 하이불가
불이로다 리수에 병다한후 이남은
은혀미리여 ᄒᆞ일가친 쳔씬ᄒᆞ여 형제자ᄆᆡ
화목ᄒᆞ고 ᄇᆡ목을 쳔라말고 은ᄋᆡ랄
부ᄃᆡ 도라려 ᄌᆞ의할도리 이난치산을
쏘알거시라 모슈견화 길삼ᄒᆞ애 쳘쳘이
의복ᄒᆞ고 조셕공제 치▨▨▨ 세리리병
튼ᄒᆞ밧것 곡식슈심ᄒᆞ애 노복으지 일치말고

남은곡 권지단이라

김치정을 잘직혀여 해항의 혀의말낭
식찬이촌 조흔반찬 깁히깁히 딕졉ᄒᆞ라
삼시로 딕졉디와 조셕의로 불싯디난
일간중을 어니믹 드라셔 눌바람
졈업딕에 손주드러 못할소야 일연일드
제사젹의 셩치짓라 ᄒᆞ여라 농긍딕졉
착실ᄒᆞ라 들밧공눅 ▨▨시히 가는말은
달것쳐 봐려두고 여즈의 할도리난
유슌ᄒᆞ미 웃듬니라 직여칠양 ▨▨약산의
심규슈와 유슌한연후 낙포션여 지금도도
조딕가의 문장도 유슌한후싀라 일진만즁ᄒᆞ야
도불공션 원슈로다 불여도랄 삼기로
도달ᄒᆞ애 으말ᄒᆞ여도 부딕ᄒᆞ딕 부모욤지ᄒᆞ야
행인연질하니 무의▨기려자 아니할소야 어화이잉들아
잉훈계 잇지마라 일싱빅만ᄉᆞ의 유슌을
일삼으면 쳔신이도 복을쥬고 문휘영둥ᄒᆞ애
즈즈▨익 만게에 퉁효ᄒᆞ고 슌복을
촌조봣고 부저영ᄎᆞ ᄒᆞ노리라 가히드졈
국ᄒᆞ기네 드안코 벗기이불
직말 반길지라

갑즈망월가라
달아달아 발근달아 갑자상월 발근달라
초싱의 눈졉달아 의심오에 의상월인
젹막산즁 깁흔곳의 초당우의 홀노안자
츌입산 거문고락 물읍우의 올혀노코
흥을거워 집노더니 즁창션 빗친영자
폼염을 회롱키로 한손을 벽을집고
한손으로 총을역 낙낙장송 은하우의
울울ᄒᆞ고 셥셥취요 은세간의 용용ᄒᆞ이
별류쳔지 비인간읜 일노두고 비ᄒᆞᆷ 미라
동산잉 발근비치 두려을게 도가옥앵
구비도은 열골반쳠여 조흔틱도 명일노
일너시난 제달의 비할소에
일젼ᄒᆞ 발근비쳔 만인의 기앵시리
동흉을 부구ᄒᆞ니 이우홀시 이고달도
의릐졍시 졀진졀진 보고 알지로ᄃᆞ
강구의 노인두은 알색갓 덤러쑬계

남은곡 권지단이라

싱간 불너보고 쳥누의 은녀일싁
월조쟁 둘너치고 틱령공 불을지라
젼잉즁의 우리 인싱들이 국명ᄌᆞ
만나시니 졀졀불고 ᄒᆞ레ᄒᆞ며 남훈젼
발근비치 인졍션의 여리여셔 틱령경릭
되여셔라 우리두 환국단중 호시졀의
월즁난체 씨거치고 장안도상 횡힝ᄒᆞ여
쳥누황방 ᄎᆞ근드러 명월가인 회롱할제
밍월평중 둘너치고 뭉월 가르느라
보고 벼살길 놈지의를 ᄒᆞ잉젼젹
다귀시고 챕의송귀 랑상되애 졀나감사
경생감사 되알오에 영남 ᄂᆞ려올졔

남은곡 권지단이라

[현대역]

民十百句∝

南隱曲

∝∝∝∝∝∝∝∝∝∝

남은곡 권지단이라
(해석 불가) 세상 사람들아 이 말씀 들어보소
천지간(天地間)에 중하실제 부모(父母) 밖이 아니시면
이내 몸을 길렀을 제 천금(千金)같이 중히 하시고
구산같이 사랑하여 구름 속에 뭇바다 내여서
(해석 불가) 찬 곳에는 부모가 눕고 따뜻한 곳에는
자식을 눕혀 품을락 업을락 달래시며 어르시며
동지(冬至) 섣달 긴긴 밤과 (해석 불가) 유월 더운 날에
천신만고(千辛萬苦)1 (해석 불가) 이리 내어
십오세(十五歲)가 넘어가고 이십(二十)이 정하면
없는 재물(財物) 수합후(收合後)에 혼처(婚處)를 청한 후(後)에
가세(家勢)를 차려주세 (해석 불가) 신여이나
자식 하나 희나의 은덕(恩德)을 알게 될 때
머리를 베어 신으로 삼고 해를 베어 창을 받은 날
막대(莫大)한 큰 은덕(恩德)을 만일이나 갚을 것이냐
곤륜산(崑崙山)2 제일봉(第一峯)이 아무리 높다 한들
여기에 부모님의 큰 은덕(恩德)을 비기리오
만경창파수(萬頃蒼波水)3가 아무리 깊은들 여이하여
부모님의 큰 은덕(恩德)에 비기리오 (해석 불가)
명하시는 부모를 위하시오 금의옥색4
의로백년 용맹(勇猛)하고 사후(死後)에 황금배는
(해석 불가) 영장(英壯)5한들 가의 없을 큰 은혜(恩惠)를
충효(忠孝)는 갑상을 천하효자(天下孝子) 순(舜)임금6과
만고대명(萬古大名)7 공자(孔子)8님도 큰 은덕(恩德)을 오히려
다 갚아야 칭찬함에 산일사대 혼천망극이라
일렀으니 하물며 우리 같은 병님이야
두로다층 양하리요 백이부모9 행은잘이
지경이도 죄막되니 불효(不孝)는 증부자(曾夫子)10의
훈계(訓戒)로다 불효자(不孝子)여 유친은 축야성의
선이로다 옛 사람의 어진 행실(行實) 골수(骨髓)에

박혀두고 두부사람 실제 효향을 하여
시풍광(時風光)이 무정(無情)하여 세월(歲月)이 흘러가니
북광(北光)이 (해석 불가) 순식간에 다 늙었다
만민(萬民)이 (해석 불가) 되어 있고 김산미소 (해석 불가)
춘광(春光)이 흩어지고 재색고의 바진 대대
은은이니 두문잠식 소경의 눈물이 절로 난다
이별 갓삼 나고 가니 이별 생사 공은가로
저의 이별이라 꽃 같은 미색(美色)이기에 처처에
노가(奴家)11 만난 부모님 한천가면 육회가 적막(寂寞)하다
의노선대 만할 꽃산 명영에 다시 대고
서천(西天)12 지는 해는 동영(東瀛)13에 든든 오고 일취대후의
이석 날 깨우는고 샘신산 불사약(不死藥)을 두어 가지
얻어다가 부모님 지하(地下)를 향하여 천년(千年)이나
받들고저 그 살이 장천(長天)에 지는 해를
메워줄꼬 두 꿈 모을 술 (해석 불가) 난세남실
저이는 저도다 (해석 불가) 못될 일
생각 말고 효행(孝行)이란 하게해도 효행(孝行)할 줄
모르시며 부모님 하신 영을 조금도
지월마라 그 산고(産苦)도 너나 하니 망각(忘却)할 적
된단 말인가 사족(四足)을 잘 놀리어 부지런히
하였으되 청원의 시나 설천고의 비감(悲感)14하고
가친(家親)15 명을 위하였어라 할까만은 말가양불
개행진은 고금(古今)에 비감(悲感)하다 요동(搖動) 천지(天地)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아니 명이며
전안이 (해석 불가) 효행(孝行)도 하거니와
천리원행(千里遠行) 부디 마소 만일 불행 하면 분상
더욱 서럽다 호천(呼天)16하고 통곡(痛哭)하며 통곡(痛哭)하고
호천(呼天)하면 진수성찬(珍羞盛饌)17이 아무리 좋다한들
죽은 부모(父母) 살아오며 그 음식 그립던가
초행(初行)하여 걷은 성전에 하였어라 고은 옷
만나거든 부모 저 생각하고 좋은 음식
만나거든 부모 먼저 생각함은 덕(德)은
못 갚은 들 정성(精誠)조차 아니할까 왕상(王祥)18은
고명하고 맹성19은 은은둥할적에 어락에
잉어가 뛰고 (해석 불가) 지두할 사의 사람은
천고(千古)의 들고 도는 관거의 맺자할 제
황금 일부이 있단 말과 호항향을 하시라고
하늘주신 (해석 불가) 슬프도다 나와 같은 이

남은곡 권지단이라

어느 해에 효행(孝行) 할꼬 하니 부모님같이 모실 자식
무산 느리 보시라고 어여삐 그려 키우신고
(해석 불가) 매영화(每榮華)를 잘 보았던가 애식(愛息)20이
풍족하여 (해석 불가) 행할 가족(家族) 그리 생각하니
가마대분 그립도다 저 낳은 (해석 불가)
감긴 말 우리는 부모 효한에 살아서
쓸 데 없고 세상천지(世上天地) 좋은 것이 극남하기
어렵도다 이는 조세 세상 사람들아 (해석 불가) 안 보고
효행(孝行)하여 (해석 불가) 천지개벽(天地開闢)21함에 상하(上下)를
분간(分揀)하고 일양원내 (해석 불가) 잘난 하시
인생(人生)이 지간하여 만물(萬物)이 (해석 불가)
국야불식 건강덕은 남자의 응배할 일
정무동 곤순덕은 여자의 (해석 불가)
음행오행(陰陽五行)22 받은 기운(氣運) (해석 불가) 달랐으니
(해석 불가) 잃지 말고 전전긍긍(戰戰兢兢)23 하였어라
천우간의 남자 자식은 공훈(功勳)하기 어려워라
인의예지(仁義禮智)24 분성정을 한가운데 일러 있고
효제충신(孝悌忠信)25 좋은 도리 말씀으로 기설(旣設)하니
하우부일 아닐 진데 사람 되기 (해석 불가)
네 몸이 여자로서 공훈(功勳)하기를 (해석 불가)
십오세(十五歲) 급제(及第)하면 과연 당좌하고 십오세(十五歲) 이후
장성(長成)하면 괴혼으로 일렀으니 (해석 불가)
할 제물 지각(知覺)으로 버려주고 시점(時點)에서
(해석 불가) 고할 날이 (해석 불가) 뿐이로다
쓸데없는 어린 양은 (해석 불가) 부리지 말고
기점 하는 어른 말씀 귀에 담아 들었어라
친선직업(親選職業)을 (해석 불가) 공부를 (해석 불가)
해오신 음식의 본래 직업을 (해석 불가)
능통(能通)26하랴 연지상통 인문이그 월각각이
(해석 불가) 세친경정 좋은 데 법전 주러
배웠어라 (해석 불가) 음지식은 공부자(孔夫子)27의
훈계(訓戒)이고 이순위 (해석 불가) 오는 맹선
언외 일렀으니 숙하에 (해석 불가)
(해석 불가) 공도 하려니와 행실 닦아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있을 제는 애창하기나 하려니
남의 집에 주한만 사랑하기 (해석 불가)
부모(父母)에게 불순(不順)하며 (해석 불가) 더욱 밉고
가장(家長)에게 불공(不恭)하면 일생(一生)이 가중(加重)이라

남은곡 권지단이라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상랑하고
무럭추색 (해석 불가) 순면리 사납게
꾸짖던 네 부님은 일고엄재 (해석 불가) 없고
(해석 불가) 집언해 불민하를 쫓았던고
이럼으로 미조 구정의 전전주주 경서하고
(해석 불가) 일월 중인 부인 훈계(訓戒)함 삼종대의
칠거지 (해석 불가) 무실(無實)이라28 성봉정조일
불취난하니 (해석 불가) 낳은 네 부모(父母)에
전인다 이 자소에 근근차차 경서하니
전전봉공 (해석 불가) 천고(千古)에 어진 부모(父母)
영영히 하여 보니 후천지금 서생의
지금조차 없을 소에 황여영 우천가의
이마 위에 덕을 부부(夫婦)란
모음지려 할 때의 실은의 시법이요 (해석 불가)
태자도 (해석 불가) 화락하니 유하정정하여
자는 부덕(婦德)29이 제일이라 바람담담 향후에는
초욱과 담종만 하고 기록(記錄)하다 장존황후
위중(危重)을 신전하니 제왕(帝王)과 사서인(士庶人)30이
종비(從婢)31도 날랐으나 같은 날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가리
현부인은 더욱 금수 아름답다 술술 각기
들어갈 제 빈천을 (해석 불가) 거룩하다
소처난승 재상의 (해석 불가) (해석 불가)
가장 긴 정계는 전니공천 (해석 불가)
자금셔 부인다병 (해석 불가) 조악의
모심이요 방황이 겸한 말고 감만하세
부모를 노망(老妄)하다 제쳐놓고 유학학봉
한 가장 주낙으로 (해석 불가) (해석 불가)
백명호령으로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이 집에 큰 어른 남았으나
잇사냐 샘시에 드무장 세나니
반찬이요 날마다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의복(衣服)이라 어미 둥지로 드나드니 부족하면
쌀을 (해석 불가) 세시명임 두새로 조화 술떡을
과히 함에 거조 인심(人心) (해석 불가) 일춘을
훈고하니 유하하 제복(해석 불가) 여지가
있을 때에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업부연 빚 갚기에 내라니 영식(令息)32이라

남은곡 권지단이라

(해석 불가) 가정(家庭) 패가망신(敗家亡身)33 뉘 탓인고
지성(至誠) 박덕(薄德)34 네 좌등은 욕망이 더욱 없다
사람의 손이 있고 여나고 낙조지찬
출입하니 (해석 불가) 웃음소리 길 위에
떠나간다 오락가락 일가친척(一家親戚) 전말하고
수작하녀 이삼일(二三日) 춘일(春日)35이며 (해석 불가)
방물어멈36 (해석 불가) 작이 익다 천이수문
(해석 불가) 다 실로 처치하니 남의 명홍
살펴보면 미일 개기 어려워라 이부인
어진 행실(行實) 생각하여 배화(排貨)하고 금제생의
낮은 행실(行實) 종잠하여 부디 말면 (해석 불가)
열연달모 될소냐 칠세(七歲)에 남녀부동석(男女不同席)으로37
너도 먹어 알았으니 매이 유별(有別) 섬기기는
여자행실(女子行實) 으뜸이오 부인 지천(至賤) 가니
문턱 밖이 서럽지 말며 먼 거리야 경건이 되면
(해석 불가)
첫닭소리에 잠을 깨어 머리 빗고 세수하여
당(堂)에 올라 무만하고 세하기 이성부대
하라더라 와일을 (해석 불가) 부견하고
조석(朝夕)진지 바라보아 감기를 (해석 불가)
해진 후에 (해석 불가) 다수 말 살펴보며
베개 이불 (해석 불가) 취침(就寢)한 후 불러오라
(해석 불가) 부녀(婦女) 행실(行實) 또다시 들어보자
이 밤을 날 제 촛불 켜서 비춰오고 (해석 불가)
측간(廁間)38 갈 제 혼자 가지 부디 말고 (해석 불가)
임주 말라 지색니고 이하라면 (해석 불가)
지점 말라 등정의 부정하랴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청연이 으뜸이요 사람보기
부디 마소 자선이 사려고 하라 기웃거리니
층하로 남 보기에 (해석 불가) 말소리
유순(柔順)하면 부덕(婦德)을 칭찬(稱讚)하고 노님이룬
있으시거든 마저 들여 절을 하고 장사계집
만나거든 방자 되소 (해석 불가) 어른을 공경하여
유순(柔順)을 숭상(崇尙)하고 어린 동생 사랑하여
심덕(心德)을 닦으시라 서시경 일제사때에
(해석 불가)를 어찌 알고 세사음식(世祀飮食)39 장만할 (해석 불가)
(해석 불가) 말을 말고 기제사(忌祭祀)40 참사(參祀)41할 제
색복(色服)42을 입지 말고 (해석 불가) 의찰 할 제

남은곡 권지단이라

우편을 (해석 불가) 대범여를 들어서라
출주(出主)43 재배(再拜)하고 분향(焚香)44에 또 재배(再拜)하고
참신감신 각 재배(再拜)는 (해석 불가) 선산후착
초허의 (해석 불가) 재배(再拜)는 승부(承訃)45가 하나니라
(해석 불가) 각대배지 손이 차렸더라 금시(今時) 정제(精製)할 제
서병을 (해석 불가) 합문(闔門)46하여 음식을
하여 구반경이 지나거든 춘이문을
연후제관이 진다할 제 (해석 불가) 불외 마라
(해석 불가) (해석 불가) 이웃이 모셔서
철지태작하고 담주 강신(降神)47 하니라
제철의 진저들을 사람이 (해석 불가)
전우하우 다섯 (해석 불가) 줄줄이 차려라
제일 한 가운데 잔반을 모셨어라 편초체
우우런의 반시점이 제일 한 가운데 (해석 불가)
모셨으니 하런의 일어나니 병이오
우련에는 육면이라 (해석 불가) 오신 (해석 불가)
사의 삼심이요 제사 한가운데 청상 놓았으니 하련의 난
(해석 불가) 우런오세 손채그리 (해석 불가)
오색단아 기제에는 삼실이라 이랑이젠
(해석 불가) 육랑육전
은연(隱然)히 (해석 불가) 하려니와
주다는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하여 볼까
불이로다 이수에 병 다한 후 이 남은
(해석 불가) 하일(何日) 가친(家親) 천진(天眞)하여 형제자매(兄弟姊妹)
화목(和睦)하고 배목을 천라 말고 은애(恩愛)를
부디 (해석 불가) 자애(慈愛)할 도리 있는 치산(治産)을
또 알 것이라 모시 면화(綿花)48 길쌈49하여 철철이
의복(衣服)하고 조석공제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곡식 수심하여 노복에게 잃지 말고
김치정을 잘 지키어 해황(蟹黃)50의 (해석 불가)
식찬(食饌)51 이찬(二饌) 좋은 반찬 깊이깊이 대접하라
삼시(三時)로 대접하거니와 조석(朝夕)으로 (해석 불가)
일간중(日間中)52을 어느 만큼 들어서 눌 바람
(해석 불가) 손자 들어 못할 소냐 일연일도
제사 적에 (해석 불가) 하여라 농강 대접
착실하라 (해석 불가) (해석 불가) 가는 말은
달 거쳐 보려두고 여자의 할 도리(道理)는
유순(柔順)함이 으뜸이라 직녀(織女) 칠량 (해석 불가) 약산에

남은곡 권지단이라

심규수와 유순(柔順)한 연후 낙포선녀(洛浦仙女)53 지금 도도
조대가(大家)의 문장(文章)도 유순(柔順)한 후세라 일진만중하여
도불공선 원수로다 불여도를 삼기로
도달하여 (해석 불가) (해석 불가) 부모 (해석 불가)
행인 연질하니 (해석 불가) 아니할소냐 어와 이 아이들아
내 훈계(訓戒) 잊지 말라 일성백만사의 유순(柔順)을
일삼으면 천신(天神)이도 복을 주고 (해석 불가)
(해석 불가) 만개에 충효(忠孝)하고 순복을
찬조 받고 부저영차 하노리라 (해석 불가)
국학이네 (해석 불가) 벗기 이불
정말 반길지라

남은곡 권지단이라

[각주]

1) 천신만고(千辛萬苦) :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2) 곤륜산(崑崙山) : 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 중국의 서쪽에 있으며, 옥(玉)이 난다고 함. 전국(戰國) 시대 말기부터는 서왕모(西王母)가 살며 불사(不死)의 물이 흐른다고 믿어졌다.

3) 만경창파수(萬頃蒼波水) : 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

4) 금의옥색 : 금의옥식(錦衣玉食).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의식(衣食).

5) 영장(英壯) : 똑똑하고 장함.

6) 순(舜)임금 : 명군으로 알려진 중국의 신화 속 군주의 이름으로,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신화 가운데 오제의 마지막 군주. 주로 선대의 요(堯)와 함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요순'과 같이 함께 묶어 많이 사용함. 이 말은 주로 뛰어난 군주를 찬양하거나 먼 옛날의 이상적인 군주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임.

7) 만고대명(萬古大名)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널리 소문난 훌륭한 이름이라는 뜻으로,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8) 공자(孔子)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이자 학자.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여 덕치 정치를 강조하였음. 만년에는 교육에 전념하여 3,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 내고, 『시경』과 『서경』등의 중국 고전을 정리하였음. 제자들이 엮은 『논어』에 그의 언행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음.

9) 백이부모 : '백리부미(百里負米)'로 생각됨. 백 리나 되는 먼 곳으로 쌀을 진다는 말로,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뜻.

10) 증부자(曾夫子) : 증자(曾子)의 존칭. 중국 춘추(春秋)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삼(參), 자(字)는 자여(子輿). 공자의 제자로, 부모에 지효(至孝)하고 일일삼성(一日三省)하여 도를 닦음. 『대학(大學)』을 저술하고 『효경(孝經)』을 저작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음. 증자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집에 손님이 와서 증자의 어머니가 난처하여 증자를 생각하며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산 속의 아들에게 이것이 통하여 서둘러 귀가했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11) 노가(奴家) :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12) 서천(西天) : 서쪽 하늘.

13) 동영(東瀛) : 동쪽 바다.

14) 비감(悲感) : 슬픈 느낌. 또는 그런 느낌이 있음.

15) 가친(家親) :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16) 호천(呼天) :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음.

17) 진수성찬(珍羞盛饌) :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18) 왕상(王祥) : 왕상(王祥)은 진(晋)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휴징(休徵). 위(魏)나라에서 벼슬하여 태위(太尉)에 이르고, 다시 진(晋)나라에 들어가서 태보(太保)가 되었음. 성품이 효성스러워 계모가 자주 헐뜯어 아버지가 왕상을 미워하게 되었지만 왕상은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와 계모를 섬겼으며, 하루는 계모(繼母)가 한겨울에 산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강으로 가서 옷을 벗고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잡으려 하니, 얼음이 저절로 풀리고 두 마리의 잉어가 뛰어 나와 이를

19) 맹생 : 맹종(孟宗). 중국 삼국 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음. 겨울에 늙으

신 어머니께서 죽순을 먹고 싶어 하였지만 아직 죽순이 나오지 않아서 구할 수 없게 되자, 대숲에 들어가서 슬피 우니 땅 속에서 죽순이 솟아나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고 한다.

20) 애식(愛息) : 사랑하는 자식. 주로 남의 자식에 대하여 이르는 말.

21) 천지개벽(天地開闢) : 원래 하나의 혼돈체였던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중국 고대의 사상에서 나온 말로, 천지가 처음으로 열림을 이르는 말.

22) 음행오행(陰陽五行) : 음양과 오행을 아울러 이르는 말.

23) 전전긍긍(戰戰兢兢)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시경』의 「소민편(小旻篇)」에서 유래.

24) 인의예지(仁義禮智) :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름.

25) 효제충신(孝悌忠信) :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

26) 능통(能通) : 아주 잘함.

27) 공부자(孔夫子) : 공자의 높임말.

28) 무실(無實)이라 : 성실한 마음이 없음이라.

29) 부덕(婦德) : 부녀자의 아름다운 덕행.

30) 사서인(士庶人) : 사대부와 서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31) 종비(從婢) : 계집종.

32) 영식(令息) :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

33) 패가망신(敗家亡身) :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34) 박덕(薄德) : 덕이 적음.

35) 춘일(春日) : 봄날.

36) 방물어멈 : 여자가 쓰는 화장품, 바느질 기구, 패물 따위의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여자.

37) 칠세(七歲)에 남녀부동석(男女不同席)으로 : 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38) 측간(廁間) : 변소.

39) 세사음식(世祀飮食) : 대대로 지내 오는 제사의 음식.

40) 기제사(忌祭祀) :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41) 참사(參祀) : 제사에 참례함.

42) 색복(色服) : 물감을 들인 천으로 만든 옷.

43) 출주(出主) : 제사 때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어 냄.

44) 분향(焚香) : 향을 피움. 제사나 예불(禮佛) 의식 따위에서 향로에 불을 붙인 향을 넣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일.

45) 승부(承訃) : 부고(訃告)를 받음.

46) 합문(闔門) :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음식을 물리기 전에 잠시 문을 닫거나 병풍으로 가리어 막음.

47) 강신(降神) :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처음 잔을 올리기 전에 신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모사(茅沙) 위에 부음.

48) 면화(綿花) : 목화.

49) 길쌈 :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남은곡 권지단이라

50) 해황(蟹黃) : 게의 알로 젓을 담근 간장.
51) 식찬(食饌) : 반찬.
52) 일간중(日間中) : 일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말함.
53) 낙포선녀(洛浦仙女) : 낙포의 딸. 낙포의 선녀. 복희씨(伏羲氏)의 딸 복비(宓妃)를 일컬음. 그녀는 낙수에 익사(溺死)하여 낙수의 신이 되었다 함. 위(魏)나라 조식(曹植)이 조비(曹丕)의 왕후가 된 옛 정인의 혼을 낙수(洛水)가에서 만나보고, 그 일을 낙수신 복비를 만나는 것으로 비유하여 「洛神賦(낙신부)」를 지었음.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